

PART 02

다양한 참여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환경재단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각종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재단은 이해관계자를 사업에 참여하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크게 NGO, 후원자, 기업, 시민, 그리고 내부구성원의 5가지 범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범주의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환경재단은 2007년부터 매년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매주 온라인으로 웹진 <그린 리포트>를, 해외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매월 영문 뉴스레터 <그린 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재단 홈페이지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매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NGO	후원자	기업	시민	내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의 NGO 지원 • 시민단체 상근자 장학사업 • 시민단체 상근자 현장연수 • 임길진 NGO 스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후원 • 정기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분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참가자, 자원활동가 등 • 현장실문조사 • S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자 • 이사진, 운영위원, 집행위원 • 정기이사회 • 정기운영위원회 • 주간회의
<p>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지속가능보고서, 창립기념식, 심포지엄 및 포럼, 사업별 리플렛, 브로셔, 미디어 공동기획 기사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웹진 <그린 리포트>,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환경재단 홈페이지, 영문 뉴스레터 <그린 레터></p>				



환경재단은 각 5개 부문에서 선정된 총 11명의 이해관계자와 서면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인터뷰

우리사회 시민단체 연구 및 활동지원은 사회운동적 측면에서 큰 의의 가져

이진우 에너지후정책연구소 부소장 | 2013·2014 그린 아시아 그랜트 국내부문 지원 및 협력단체

환경재단과의 관계는 2013년, 재단이 공모한 그린 아시아 그랜트 국내 NGO지원사업에 에너지후정책 연구소가 지원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양 기관 모두 동남아시아 대상 ODA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환경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간의 활동 노하우와 지역적 관심사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지원했습니다. 이후 재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기존 환경재단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방식으로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정적 역량을 지닌 조직이 다른 사회단체의 연구사업이나 활동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운동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재단의 그린 아시아 그랜트는 에너지후정책연구소의 연구분야 확장 및 심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본격적인 사업 파트너로서 협력 사업을 함께 진행한 기간(2014.3~현재)은 얼마 되지 않아 환경재단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만 그치는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환경재단의 행정 및 연구지원은 NGO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자체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 평가와 사업 보안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서, 이를 시행하는 환경재단 사업 운영 방식의 개방성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현 사후보완적 사업평가 이외에도 사업의 사전기획 단계에서도 역시 외부 의견을 듣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앞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분야 특유의 의제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환경재단 사업참여과정에서 단순히 시민환경단체 뿐만이 아니라 유관 의제 NGO의 참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 소규모 공모사업 이외에는 일반 NGO가 환경재단에 사업을 제안할 명확한 창구가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수시로 사업계획서를 수용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공고하고, 시의 적절한 현안 이슈 대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재로선 단체의 브랜드 가치나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 NGO의 환경단체로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도 없잖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환경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느낀 점은, 재단의 주 역할이 자체적인 사업 시행보다는 사회 각 분야의 더 나은 역할수행을 위한 지원사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업수행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사회단체의 자체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고, 그 아웃풋을 공동화하는 형태로 재단의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시민환경단체들의 역량이 안정화 되어있기 때문에 환경재단이 진행하는 그린 아시아 그랜트 등 제3세계 지원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환경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아시아 태양광 전동 지원은 단일품목으로서의 사업의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후 독립형 재생가능에너지마을 만들기 등 통합적이고 심화된 사업 프로그램으로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가 마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역사회적 특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환경재단만이 차별화할 수 있는 모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해관계자 인터뷰

매우 실용적이며 혁신적인
아시아 태양광 전등 지원 사업

BEDS 2013 '아시아 태양광 전등 지원 <1만개 태양을 나누다>' 방글라데시 협력단체

BEDS(Bangladesh Environment and Development Society)는 2013년 2월부터, 환경재단의 아시아 태양광 전등 지원사업 방글라데시 지역의 사업파트너로 함께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1년은 결코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동안 BEDS가 평소 생각해보던 환경문제와 그에 대한 의견을 환경재단과 나누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시아 빛이 없는 마을에 태양광 전등을 보내는 환경재단의 아시아 태양광 전등 지원은 혁신적이며 한편으로는 매우 실용적입니다. 사업에 참여한 마을들 모두 이 태양광 전등이야말로 그동안 그들이 받았던 그 어떤 후원이나 지원 중에서 그들의 삶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BEDS 역시 큰 보람을 느꼈지요. 앞으로 환경재단과 함께 방글라데시의 지역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환경재단과의 의사소통은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재단의 직원들이 매우 협조적이며 헌신적입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불만은 없지만, 사업이 완료된 후 지원자금을 지불하는 자금 지원 형태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적인 문화유산과 세계 최대 망그로브 숲을 지닌 아름다운 나라이지만, 동시에 지구상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해안지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방글라데시 해안지역을 재단의 향후 사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건 어떨까요?

BEDS는 아시아의 그린허브를 추구하는 환경재단의 꿈과 목표를 지지합니다. 그날까지, BEDS 또한 방글라데시의 환경보호와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협력단체 BEDS 직원

이해관계자 인터뷰

전세계 환경위기의식 측정 함께하는
최고의 파트너

Tetsuro Yasuda,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 | 2005~ 현재 환경위기기계 협력단체

아사히글라스재단은 지난 5년간 환경위기기계 프로젝트를 위해 환경재단과 협력해온 파트너입니다. 저는 아사히글라스재단의 사무국장이자 환경위기기계 사업매니저로서 환경재단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습니다. 환경재단과는 지난 2005년부터 한국의 환경위기기계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 정보, 그리고 환경위기기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환경위기기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인 프로젝트로서, 한국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요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환경재단을 통해, 저희 재단은 매년 한국의 환경위기기계 설문조사 내용을 받고 그 결과를 전세계에 배포했습니다. 한국의 대중들 역시 이 결과를 통해 전 세계 환경위기기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제가 함께 일했던 환경재단의 담당자들이 모두 훌륭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프로젝트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새로운 사람에게 처음부터 모든 걸 설명해야 합니다.

환경재단이 환경위기기계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재단의 활동이 한국의 환경위기의식을 고취시키고 대중에게 환경을 친숙하게 느끼게 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던 점에서, 환경재단의 활동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위기기계 프로젝트 파트너로서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재단이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를 지속하여, 전세계 그리고 한국의 환경위기기계를 한국의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으면 합니다.

이해관계자 인터뷰

아이의 생일선물로
아시아에 ‘빛’을 선물했어요

소수은/수민 가족 개인후원자

울산에서 사내 커플로 만난 우리 부부가 길고 긴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어 경기도에 가정을 꾸린지도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멋진 아빠, 수다쟁이 엄마,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큰딸 수은(5세), 제1반항기를 맞이한 아들 수민(3세) 이렇게 네 가족이 열심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평소 환경과 건강을 생각해서 가정에서 일회용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아이들에게도 일회용품은 좋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베이킹파우더나 구연산 같은 친환경세계가 불편하다는 통념과 달리, 우리 가정은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멀티탭 사용은 수은이 수민이가 아주 좋아해서 잘 활용하고 있어요. 자기 전이나, 외출할 때, 불 끄고 멀티탭 누르는 건 서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앞으로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환경을 위한 실천을 계속 하고 싶어요.

환경재단은 작년 부산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린 <뉴욕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와 해양환경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어 아이들 이름으로 정기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은이의 다섯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부모로서 뭔가 특별하고 해 주고 싶어서 아시아 태양광 전등 지원에 일시후원도 하였지요. 기부를 통해 뜻 깊은 생일을 만들고 아시아 빛 없는 마을에 친환경 태양광 전등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렘니다. 다른 나라에 사는 언니 오빠 동생들이 저녁에도 수은이처럼 마음껏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니, 수은이도 무척 좋아라 한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 주위에 환경재단의 아시아 태양광 전등 지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 또한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가족은 주변 지인에게 아시아 태양광 전등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은 후원자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재단을 통해 매일 미래의 희망을 봅니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 정기후원자 소수은/수민 가족은 2013년 자녀의 생일을 기념하여 ‘아시아 태양광 전등 지원 <1만개 태양을 나누다>’에 20만원을 일시 기부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인터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환경친화적인 국가가 될 때까지

한근태 환경재단 운영위원 | 개인후원자

저희 외할아버지는 너그러운 분이셨지만, 제가 밥알을 남기면 언제나 야단을 치셨습니다. 이 밥알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인지 아느냐는 이유였지요. 팔십이 넘은 제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외식을 하신 후에는 남은 밥을 집으로 가져가십니다. 어머니께서도, 외할아버지를 보고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건 미국 유학시절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텅 빈 연구실도 안전을 이유로 불을 켜었습니다. 교실에서는 바로 전날까지 히터를 켜다가 다음날부터 에어컨을 켭니다. 먹는 음식, 다 먹지 못해 버리는 음식 또한 엄청납니다. 그로 인한 비만문제 또한 심각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들의 무신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전 세계인들이 미국인처럼 생활한다면 지구가 수십 개 있어도 모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들이 미국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처럼 생활합니다. 늘 속으로 “이건 아니다. 이런 미친 행동을 막아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같은 회사 동료였던 이미경 사무총장이 환경재단에서의 일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에 호응하게 되었습니다. 후원자가 되었고 운영위원도 맡았지만 사실 별로 기여한 건 없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꾀꾀하게 성장해 온 환경재단에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환경허브를 꿈꾸는 것에도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집중화입니다. 하나를 정해 거기에 모든 지원을 쏟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테스트를 하였으니 앞으로 10년은 한 방향을 정해 거기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환경친화적인 국가로 만드는 것, 한국인을 전세계에서 가장 환경친화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환경재단이 하면 어떻가를 생각합니다. 가장 적게 먹고, 가장 적게 버리고, 가장 작은 차로 가장 적게 몰고, 가장 많이 걷기 등등... 이런 생각을 하면 할 일들이 주~욱 떠오릅니다. 적절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이를 평가하는 일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사실 궁금합니다. 정치인 중 가장 친환경적인 사람은 누구일까? 기업인 중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사람은 누구일까? 환경재단도 궁금하지 않나요? 앞으로 환경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한근태 후원자는 지난 2007년부터 매월 10만원씩 정기후원하고 있으며, 총 납부금액 최고액 개인후원자입니다.

이해관계자 인터뷰

푸르른 미래를 향한
10년간의 파트너십

이완신 롯데백화점 마케팅부부장 | 만분클럽

롯데백화점은 지난 10년간 환경재단과 함께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펼쳐왔으며, 만분클럽의 일원으로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상품권 판매 금액의 일부를 매년 기부해 약 68억 원의 환경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환경 기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환경 리더 육성을 위해 어린이 환경학교와 샤프테그린드림머스를 운영하였으며, 친환경 라이프를 위해 쿨비즈 캠페인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글로벌 사회공헌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몽골의 저소득계층 가정에 태양광 전등을 무상 기증하였으며, 환경위기사계를 롯데백화점 본점에 설치해 매년 환경 위기사건을 발표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위기 인식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의 평화와 환경을 위해 운영하는 피스&그린보트에도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롯데백화점은 환경 사회공헌의 범위를 더욱 확장시켜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환경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환경재단의 네트워크와 전문성, 그리고 롯데백화점의 폭넓은 고객과의 접점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더 많은 이들이 환경과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단과의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완신 롯데백화점 마케팅부부장

이해관계자 인터뷰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줄 기회가 되길

최갑중 하이원리조트 사회공헌위원회 | 2013 피스&그린보트 어린이선상학교 기획 및 진행

2년 전인 2012년, 하이원리조트가 계획하던 2013 피스&그린보트 하이원 어린이선상학교 프로그램 계획을 위해 다른 기업들의 활동을 참고하고자 처음으로 피스&그린보트에 탑승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어린이선상학교를 운영하는지,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일학생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3 피스&그린보트 어린이선상학교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2013 하이원 어린이선상학교의 목표는 강원도 폐광촌(영월, 정선, 태백, 삼척)의 어린이들이 지구촌의 평화와 환경문제에 대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직원들은 어린이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보트를 탑승하기 전, 사전설명회에서 처음 멘티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앞으로의 여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란 예감을 받았습니다. 인솔자인 저와 멘토 역할을 할 임직원들은 적지 않은 혼란스러움을 느꼈었지요.

하지만 피스&그린보트를 타는 동안 이러한 혼란스러움이 조금씩 해소되었습니다. 특히 상하이 기항지 프로그램을 통해 멘티 어린이들에게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상하이 임시정부를 방문하면서 어린이들은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선상에서는 멘토 선생님의 관심을 독차지하려는 아이들로 인해 난감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동방명주에서 적극적인 어린이와 소극적인 어린이의 역할이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그동안 어린이들을 편협한 시각에서 판단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의 멘토 선생님 외 다른 선생님들과도 교류하고 싶어하는 적극성까지 보였습니다. 마지막 밤에는 멘토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함께하며 그동안 힘들었던 일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웅어리진 마음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직원 멘토 선생님들과 어린이 멘티들이 서로 안아주고 눈물을 흘렸던, 진정한 사랑의 힘이 발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소원은 2013 하이원 어린이 선상학교가 모두의 마음 속에 오래 동안 기억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선상학교를 주관한 하이원리조트와 환경재단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아이들이 선상학교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셨고 덕분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이 홀로 외롭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 역시 이러한 감정을 느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9박 10일이란 긴 여정 동안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이원리조트 임직원들과 환경재단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해관계자 인터뷰

나의 꿈은 노래하는
환경운동가

김선 잠일초등학교 6학년 | 2013 어린이그린리더십과정 참가 및 최우수 그린리더 | 2014 세계청소년지구환경포럼 참가 및 환경재단상 수상

지리산 근처 시골 출신 엄마의 영향으로 전 평소에도 환경과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던 중, 환경재단과 롯데백화점이 함께하는 어린이환경학교와 코카콜라와 함께하는 어린이그린리더십을 신청했습니다. 어린이 환경학교 프로그램은 취소되었지만, 운 좋게도 어린이그린리더십과정에서 어린이 그린리더로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그린리더십 과정 중 하나로서 2013년 6월 15일 두옹습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단순한 여행이었다면 주변 경치만 감상했겠지만, 환경전문해설가의 설명을 듣고 그린리더 친구들과 함께 두옹습지를 직접 체험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교육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는 제법 더웠지만 하늘이 참 맑아서, 해당화가 피어있는 해안사구를 지날 때는 저도 모르게 "해당화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라고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평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두옹습지를 체험하면서 앞으로 노래하는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때의 느낌을 에세이로 적어 어린이그린리더십 최우수 그린리더로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다른 7명의 최우수 그린리더 친구들과 일본 오사카지역으로 함께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를 인솔해주신 직원들과 강사님들 모두 친절하셨고, 함께 간 친구들도 훌륭했어요. 3박 4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때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교훈과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라진 황새를 복원하고 오염된 자연을 되살리는 과정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아름다운 마음과 태도를 지닌 동행인들로부터 받은 감동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환경보호란 일회성이나 특별한 날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면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난 해 봄,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여 가정용 텃밭에 적당한 옷거름을 만드는 실험을 했습니다. 베고니아 화분 11개를 준비해서 다양한 음식물찌꺼기를 올려서 4개월 동안 관찰하면서 일지를 기록했습니다. 이 내용을 2014년 세계청소년지구환경포럼에서 발표를 했는데, 뜻밖의 호평을 받아 환경재단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망설였지만, 체험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환경포럼기간에서는 외국에서 온 친구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며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년동안, 환경재단은 제게 정말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이 좋은 기억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는 올해도 열심히 환경을 지키는 그린리더가 될 것입니다. 올해 그린리더십과정에도 다시 참여하고 여름방학에는 기후변화탐사대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많이 홍보하고, 환경을 지키는 데 동참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잠일초등학교 김선 학생



이해관계자 인터뷰

활동가의 역량강화 위한
장학프로그램의 확장 필요

조옥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활동가 | 시민단체 상근자 장학사업 2기 졸업 | 이화여대 여성학 석사

저는 장애여성과 소수자의 인권과 대안 마련을 위해 활동하는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의 활동가 조옥입니다. 지역품앗이 한발레츠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지역화폐 운동의 대안성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 - 한발레츠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지금 저는 소수자 운동과 대안운동 사이에서 좌충우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여성 단체의 활동가로 일하면서 쉽을 갖고 스스로를 돌아 볼 틈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본래 여성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학비 부담이 커서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당시 환경재단의 장학사업 얘기를 들었고, 다행히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학 공부를 통해, 여성학 이론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면서 무엇보다 제도화 운동의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성과 중심 운동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제 자신을 성찰하고 싶었습니다.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여성주의가 주는 해방감에 희열을 느끼기도 하며, 몸에 배인 기존의 습관과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실천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습니다.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돌아 돌아온 그 동안의 긴 여정은 제 삶의 과정에서 필요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활동가들의 인식과 실천 방식은 단체와 공동체 활동에 있어 상호 작용하며 영향을 줍니다. 운동방식에 있어 답이 하나일 수 없고, 서로의 차이 속에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활동가들이 매몰되지 않고 자신을 성찰하며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훈련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활동가가 역량을 확장해가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있어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이론과 실천을 연결해보는 작업은 그 동안의 활동을 점검하고, 미래를 조망해 보는 뜻 깊은 과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졸업하고 장애여성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금도 활동가로서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장학금이 아니면 학위 과정을 공부할 엄두도 못 내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주변에는 환경재단의 시민단체 상근자 장학사업에 도전했다 좌절된 활동가들도 몇 명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활동가들에게 장학금 받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졸업생들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재단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해 드리는 말씀이지만 재원확보와 기업후원에 있어 윤리적 기준에 대한 고민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자 인터뷰

더 많은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은 우리 사회의 희망

신경준 서울환경영화제 | 그린아카이브 정기상영회 참가 | 2013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저는 지난 2012년, 이미경 환경재단 사무총장님의 소개로 그린페스티벌 온라인 사이트 ‘숲과 나 (forestandi.org)’의 교육지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일을 계기로 환경재단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울환경영화제, 그린아카이브 정기상영회 등을 통해 재단의 더욱 많은 활동에 참여하였고, 이러한 활동 끝에 부끄럽지만 지난 해에는 ‘세상을 밝힌 사람들’로 선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재단이 서울환경영화제와 같이 포괄적이고 파급력 있는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부럽습니다. 더불어, 국내 NGO 활동 사업을 위한 소규모 지원사업 또한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연구지원사업을 통한 결과물을 홍보하는 일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환경재단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환경영화제, 그린아카이브 정기상영회, 어린이 환경교육 등은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을 통해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 지속적인 재단활동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니어에서 성인 회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의 환경재단 관련 활동을 통해 제가 느낀 점은, NGO 단체 간의 연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사회, 나아가 아시아에서 NGO 그리고 시민사회 간 더 강한 연대를 이끄는 환경재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해관계자 인터뷰

재단과 함께 성장하는 나 나와 함께 성장하는 재단

윤다정 환경재단 상근자

저는 2011년 2월 환경재단과 처음 인연을 맺고, 이제 만 3년을 넘겨 어엿한 4년차가 되어 그린사회공헌실에서 기업모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만큼 환경재단에서 다양한 사업을 경험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 환경교육과 저소득층 아토피치료지원 사업을 담당하며 지구의 미래를 지키고 싶어 하는 똘똘똘망한 학생들, 아토피에서 조금씩 해방되어가는 어린이들과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 아시아 태양광 전등 지원사업을 담당하면서 인도네시아로, 네팔로 많은 출장을 다녔습니다. 태어나서 한번도 접한 적 없는 ‘전깃불이 없는 밤’이 어떤 느낌인지, 전기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깨끗하고 안전한 빛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피스&그린보트에서 한일 양국의 명사들, 시민들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하는 정말 일생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환경재단만의 투어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환경영화제를 통해 좋은 환경영화들을 보고, 그린 아시아 그랜트 해외 NGO지원사업 사업을 도우며 아시아 환경 이슈와 NGO들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재단의 다양한 국내외 사업을 진행하고,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업무를 통해서, 다른 직장 어느 곳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환경재단 상근자들은 월요일 아침 전체교육을 통해서 환경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국제환경동향을 공부하는 모임도 있어 환경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좋은 동료들과 전문성을 쌓아나갈 수 있다는 즐거움에 더해, 환경재단은 상근자들의 어학교육비와 직무관련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 개인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면서 단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직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시아의 그린 허브로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환경재단의 발전과 더불어 그 활동에 일조하는 모금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